

中央아시아의 신에 관한 研究

—타지크(Tadzhik)를 中心으로—

A Study on the Foot Wear

—On the Tadzhik of central Asia—

建國大學校 藝術大學 衣裳學科

助教授 鄭 夏 信

Kon-Kuk Univ., College of Arts

Dept. of Fashion Design

Assistant Prof.; **Ha-Sin Jeong**

<目 次>

I. 緒 論

II. 신의 紀元과 變遷

III. 타지크의 民族學的 特徵과 服飾文化

IV. 타지크의 신과 우리나라의 신

V. 結 論

參考文獻

< Abstract >

All the cultures are enriched and developed themselves through the contact with another culture, which propagate and transplant its new cultural elements to a time-honoured tradition. Therefore, the investigation of the origin of each culture means to find out the all the elements of each culture itself in the end.

In Korean Costume, we can find both the Costume of frizid jone and that of temperate jone together, effected by the influence of typical continental climate. Accordingly, we can also realize that both Lee(履), of southern tribe and Haw(靴), of northern tribe suitable for the protection of cold weather, existed in Korea. Even Lee and Hwa were used together. Hwa had been appeared earlier than Lee along with the Skitai Costume and we can find its origin in the line of Skitai costume. In Central Asia, Tadjhik was the only race tracing their ancestry from ancient Iranic genuinely and they had been keeping the culture of Skitai origin continuousl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Korean's own culture of the footwear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adjhik's culture of costume, specially through the culture of Tadjhik footwear.

To reach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the comparision and investigation between Korea and Tadjhik was made carefully for the followings; culture of life and costume, froms and materials of footwear.

1. The treasers and boots made by leather and felt was the origin of costume culture of

Central Asia and aboves were appeared in persian costume for the first time. We can consider that those had connection with Korean culture of costume.

2. Form of Tadjhik footwear can be devided by hwa and Lee, and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form between that of mountain area and plain area. We can find more rariety in footwear of mountain area.

3. If we compare the form of Hwa and Lee of Tadjhik with our own footwear, we can find out many things in common and there are lots of similarities particularly in form and material.

4. We can say that the difference of Tadjhik and Korean was the preference of Hwa for Tadjhik and Lee for Korean, aboves came from the different totography, climate condition and life style.

5. The form of male and female footwear of tadjhik was almost similar, but female footwear had various and beautiful decorations for the ornament.

6. The materials of Tadjhik footwear was mostly leather, and Hwa was used particularly for labour purposes.

7. We can expect that Tadjhik of Central Asia and Korea had a similar origin and style on the footwear.

It can be expected that we can find out many common things in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study of Tadjhik costume and will exert the examination continuously.

I. 緒 論

모든 文化는 他文化와의 접촉 즉 고유의 傳統에 다른 文化의 전파와 移植를 통해서 새 要素를 가미하여 스스로 풍부해지면서 형성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文化의 源流를 살핀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形成하고 있는 모든 要素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밝혀내는 작업이 된다고 하겠다¹⁾.

服飾 또한 한 時代의 社會相이나 人間의 身體를 통해 단면으로 표현되어 지는 民族性 강한 產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가장 原初의 이면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自然環境이나 그 社會固有의 생활 양식, 民族特性 등에 의해 形成되고 他文化와의 交流나 전파로 인해 새로운 要素들이 더해지면서 形態의 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 民族은 알타이(Altai)語族에 속하는 통구스(Tungus)족의 한 갈래인 동이족(東夷族)을 基幹으로²⁾ 독특한 服飾文化를 이루었다.

즉 夏濕冬乾한 大陸性 氣候로 인해 寒帶性 服飾과 溫帶性 服飾의 樣相이 混合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足衣도 雲두가 얇은 履는 文秩의인 南方族의 것과 雲두가 깊은 靴는 防寒에 適當하여 武風的인 北方族이 많이 着用하였다 한다³⁾.

우리 나라에서는 이같은 履나 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스키타이系 衣服과 함께 들어와 먼저 着用되었던 것은 靴形이었으며 그 源流는 스키타이系 服飾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⁴⁾.

「中華古今注」에도 “靴라는 것은 예 西胡制로서 趙武靈王이 常服으로 삼았다. 그 靴가 짧은 黃皮靴는 閑居服에 着用하고 말을 탈 때는 鞞를 길게 해서 거기에 靴(전)이나 條(조)를 달아 棄馬에 편리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즉 靴의 源流는 西胡라 했는데 이는 서쪽의 스키타이 系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⁵⁾.

1) 金元龍, 「韓國文化의 起源」(서울: 探求堂, 1976), p. 20.

2) 「世界文化史II」(서울: 學園社, 1964), p. 564.

3) 李如星, 「朝鮮服飾考」(서울: 白楊堂, 1947), p. 147.

4) 金文子, “古代韓國服飾의 源流에 관한 研究”(博士學位論文, 이화여자대학교, 1984), p. 95.

5) 金文子, 상계서, p. 96.

스키타이 服飾의 특징은 窄袖, 短上衣에 下衣로서 袴를 着用하고 귀까지 덮는 모자와 長靴로서 騎馬와 防寒에 적합하다고 하였다⁶⁾.

內陸 아시아의 초원지대가 原始遊牧民의 住居地였던 新石器時代 이래, 혹해 北岸 지방에서 출발하여 우랄산맥의 中央部를 넘고, 南시베리아에서 알타이 지방을 거쳐 蒙古에 도달하는 路線은 헤로도토스의 歷史에서 나오는 B.C. 7~6세기 무렵부터 알려진 길이며, 이 交通路는 대개 '黃金의 길', '毛皮의 길'로 알려져 있었다. 이와 같은 路線을 따라 스키타이 文化는⁷⁾ B.C. 5~4세기 이후 南시베리아의 알타이 지방에서 蒙古高原에 전해졌다.

한편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지대, 타림 분지나 파미르 고원을 사이에 두고 암, 시르의 大河 유역 지방의 原始農耕民과 半農半牧民 사이의 東西通交는 新石器 器 말기, 靑銅器 시대 初期에 시작되어 韓國服飾文化의 源流 문제와 관련성을 갖게 된다⁸⁾.

특히 中央아시아에 있어서 타지크만이 古代 이란 語族의 직접적인 後裔 즉 스키타이 系統의 文化를 지니고 있는 民族이다⁹⁾.

이에 本 研究의 目的은 타지크의 服飾文化, 足衣文化를 통하여 우리 足衣文化를 살펴 보는데 있다.

研究의 內容으로는 타지크의 生活文化 및 服飾文化, 足衣의 種類와 形態 및 재료 등을 우리의 足衣와 비교 검토해 본다.

研究方法에 있어서는 文獻이나 사진, 그림 자료 등을 이용하고자 하며, 직접 소련을 방문하여 研究한 日本 學者의 보고를 참고로 하였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 再引用하게 되는 制限點을 가지므로 앞으로 미비점을 보충해 가고자 한다.

II. 신의 起源과 變遷

足衣는 발에 신는 것의 總稱으로서 발의 保護와 裝

飾을 겸한 것으로 신의 發生과 그 變遷過程을 살펴 보면, 古代부터 人間의 기본적인 필요의 하나는 굳은 땅 위나 숲속을 거닐 때 발끝을 保護하는 것이었다. 地面과 발바닥 사이에 가죽이나 나무 껍질의 깔개를 발끝에 고정시키기 위해 잡아매기 위한 끈이나 가죽이 필요하였고, 이것이 신의 祖上인 샌들의 發生이다¹⁰⁾.

이처럼 신은 人類의 시작과 더불어 같이 했다. B. C. 3500년 무렵의 壁畫에서 볼 수 있는 신발이나 B. C. 1350년에 死亡한 탄카벳의 묘에서 나일강의 풍경을 裝飾한 폭이 넓고 끈이 달린 훌륭한 샌들이 發見된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B.C. 525년부터 31년에 걸쳐 헬레니즘 시대의 앞이 뾰족한 신발은 亞細亞에 의해 이집트나 그리스에 전해졌다. 또한 長靴 즉 발등을 감싸는 形의 신발이 古代에 처음 나타난 것은 서아시아의 遊牧, 山嶽民族에 의해서이고, 이것이 地中海를 거쳐 Creta Greece, Rome에 전해졌다¹¹⁾.

특히 中央아시아의 타지크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페르시아(Persia)人들은 험악한 山嶽지대에 살면서 말타기와 사냥에 능숙하였고, 動物가죽을 처음으로 衣服으로 使用한 사람들이¹²⁾.

그들은 Candys¹³⁾ 속에 바지(trousers)나 스타킹을 착용하였으며 바지가 服飾史: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발목까지 오는 長靴를 신고 재료는 皮革과 felt를 사용하였으며, 진주와 보석으로 수를 놓은 靴를 着用하였다.

또한 페르시아는 서아시아의 服飾文化를 整理해서 이것은 傳했다고 할 수 있다¹⁴⁾.

文獻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신의 기원은 부여 馬韓의 草鞮, 草履 등으로 가죽이나 풀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었다.

6) 江上波夫, 「騎馬民族國家」(東京:中央公論社, 1967), pp. 12~22.

7) 小口八郎, 「シルクロード」(東京:日本書籍, 1981), p. 170.

8) 任明美, 「中國의 古代服飾研究(I)」(서울:耕春社, 1988), p. 38.

9) 加藤九祚, 加藤定子, 「民族住活文化誌」(東京:衣生活研究會, 1987), p. 76.

10) Lawrence langer, 「服裝의 心理」, 朴東俊譯, 서울 維神文化社, 1981, p. 106.

11) 具仁淑, 「古代西洋의 신발에 관한 研究」(忠南大學校 自然科學研究所, 1980, p. 192.

12)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5), p. 66.

13) Candys: 非活動的인 긴 Rob로 貫頭衣에서와 같은 편안함과 卷布衣의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어 優美와 變化를 좋아하는 貴族 사이에 애용되는 公服으로 사용되었다.

14) 李正玉, 「西洋服飾史」(서울:學文社, 1980) p. 58.

三國時代 이후 차차 내려오면서 재료도 다양하여 草麻, 布帛, 皮草, 金銅鎗, 紙, 木 등으로 하였고 모양은 크게 나누어 신목은 없고 신바닥과 신운두만으로 된 履와 신운두 위에 신목이 짧게 또는 길게 있는 靴形이 있었다.

高句麗의 古墳壁畫에서 보면 상류사회의 사람이 履에 속해 보이는 신을 신었고 수렵을 할 때, 또는 樂工, 舞者 그밖의 낮은 계급이 靴 모양의 신을 신은 것으로 보인다. 統一新羅期에도 靴와 履가 병용되었고, 高麗初에는 주로 履가 사용되다가 高麗末에는 靴를 주로 사용하였다¹⁵⁾.

朝鮮時代에는 履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였고 靴는 王室, 官員의 制度服飾에 채용되고 그리고 庶民층에서는 草履와 麻鞋, 紙鞋 등을 주로 착용하였고 나막신(木鞋, 木屐)도 사용하였다.

III. 티지크의 民族學的 特徵과 服飾文化

1. 티지크의 民族學的 特徵

중앙아시아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곳은 西歐學者들 중에는 이란 북쪽, 우즈벡, 카작, 아페르 바이잔, 키르키즈 등 소련의 중앙아시아 영토를 의미한다고도 하고, 또 오늘날 中國西北部 新疆省, 소련의 南部 투르케스탄, 아프키니스탄의 東北部, 파키스탄 北部 등의 국경 지대를 골고루 꿰뚫는 地域이라고 한다¹⁶⁾.

이와는 달리 內陸아시아(Inner Asia)라 하여 유라시아 大陸의 초원 지대, 東部 유럽으로부터 滿洲에 이르는 과거 遊牧民族들이 활동하던 全住居地域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의 중앙아시아는 中國領 新疆 위그르 自治區와 소련領 우즈벡 공화국과 티지크 공화국으로 나뉘어져 있다(그림 1-①②).

티지크語는 페르시아語와 거의 같으며 인도 유럽語族인 서이란 그룹에 속하고 있다. '타직'이란 이름은 古代 페르시아의 '타지'(王冠, 花冠)에서 유래하며 이전의 타직인은 拜火教(조로아스터교)의 教徒로 특

별한 모자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웠다는 설도 있다¹⁷⁾. 10세기에는 이란인은 이슬람교도를 '타지'라 불렀다. 이어 11세기에는 이 말이 투르크족 유목민에게 옮겨지고, 중앙아시아의 定居農耕民(이란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믿었다)을 '타직'이라 불렀다.

중앙아시아의 住民은 靑銅器 시대부터 南部의 農耕과 北部의 遊牧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타지크인'의 대부분은 農耕民에 속하고 있다.

'타지크인'은 山間地域과 平野地域 타지크인으로 구별되며 文化的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산간 지역 쪽에 옛 要素가 많이 남아 있음은 물론이며, 이들 산간 지역 마을의 社會組織은 씨족공동체와 같았다¹⁸⁾.

2. 中央아시아의 服飾文化와 타지크 服飾文化

중앙아시아 地域의 古代服飾을 살펴보면, 服飾의 특징은 男女同形으로 스키타이, 박트리아, 파지릭, 쿿산朝 등이 모두 窄袖, 圓領, 둔부선길이 短上衣에 下衣로 袴를 着用하는 것이 基本이다. 그러나 스키타이, 匈奴族의 경우 直領, 左衽 短上衣에 下衣로 袴를 着用이 支配的이다. 이상은 기원전 중앙아시아 地域 거주민의 基本型이고, 기원후 歷史시대가 되면 上衣은 窄袖(小袖), 貫頭衣型은 圓領을 기본으로 하여 翻領, 對襟, 혹은 左衽袍에 下衣로 袴를 着用하는 것이 基本이다. 上衣의 길이가 무릎 아래를 지나는 경우 袍가 되며, 袍의 경우 양옆이 트이는 것이 一般的이다. A.D. 4세기 이래 蠕蠕, 壓達, 突厥, 回紇, 吐蕃, 西夏 등 중앙아시아 地域 統一王朝가 모두 同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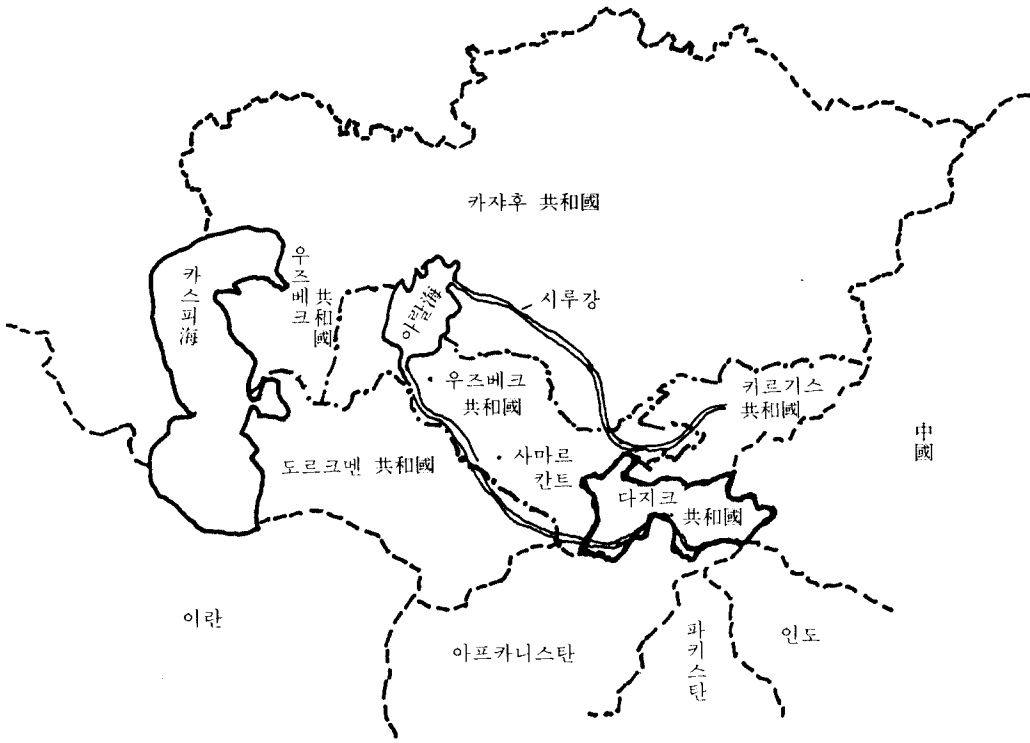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실크로드의 天山南北路에 위치한 오아시스 小王國들의 服飾도 貫頭衣型 圓領上衣에 下衣로 袴着用을 基本으로 하고, 東, 西兩端에서 페르시아적 이란式 文化와 中國的, 中國式 文化가 小王國 征服의 歷史의 興亡盛衰와 浮浸이 반복됨에 따라 이란적 西洋式과 中國의 東洋式 文化特性的 교차 위에 蒙古族인 元에 의해 통일 되기까지 계속된다. 7C 이후가 되면 이슬람(회교)교적 이란風의 특색이 나타난다.

15) 이은창, 「한국 복식의 역사」,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1978, pp. 343~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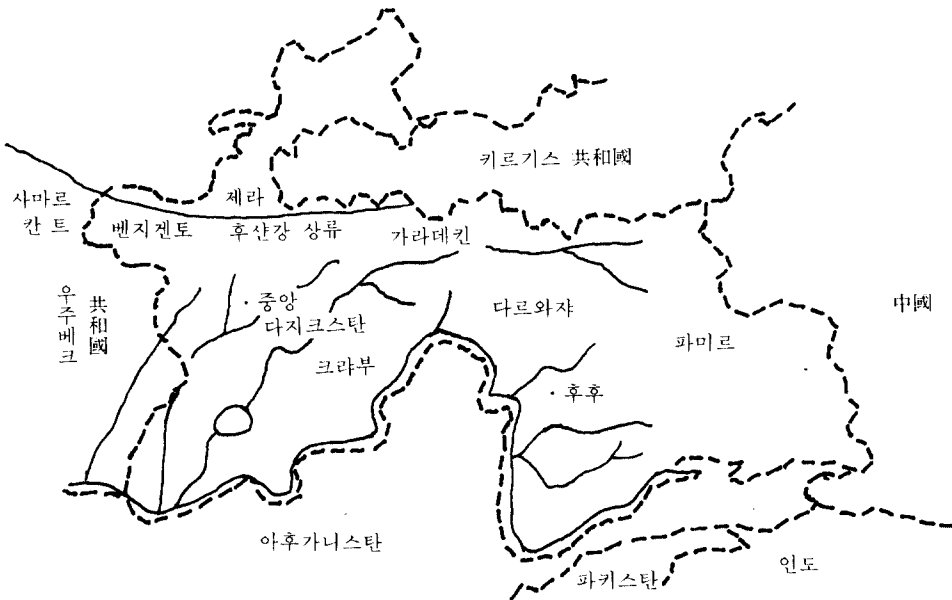
16) 에드윈·오·라이샤워 外 著, 全海完外 譯, 「東洋文化史」, 上卷, (서울: 乙酉文化史, 1964), p. 166.

17) 加藤九祚, 加藤定子, 전계서, p. 41.

18) 加藤定子, 「タジクの民族服二」, 「服裝文化」 No. 156, 1977, 10, pp. 163~168.



① 타지크 共和國의 위치



② 타지크의 각 지방

[그림 1-① ②]

IV. 타지크의 신과 우리나라의 신

1. 타지크의 신

1) 타지크의 신의 종류와 양식

타지크 女性의 신으로 傳統의인 것은 가죽 제품 인 이치기(長靴)와 가로시(履) 등이다.

祝祭, 婚禮 때에는 이치기(長靴)를 신고 그 위에 가죽제의 가로시(履)를 신는다. 근래에는 도시에서 일하는 女性들은 여름에는 하이힐을 신고, 겨울에는 가로시(履)나 가죽인 카후시(발부리, 발등을 덮고 측면은 앞다)를 신는다. 겨울에는 이치기(長靴)를 신기 전에 형갈오로 만든 게트르(포이트바: 행진)를 감거나 혹은 형갈오로 만든 긴 양말(파이도르)를 신

<표 1-1> 중앙아시아 古代服裝一覽)(現소련령 우즈벡, 타지크공화국의 故地를 중심으로)

國名 區分	스키다이 (Scythia) (B.C. 750~)	박트리아 (Bactria) (B.C. 250~)	粟持 (Sogdiana)	康居 (Samarkand)	쿠파산 (B.C. 45 ~300)	파지릭 (Pazyryk) (B.C. 250~)	
衣 服	男 子 服 別	· 窄袖, 直領, 左衽,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긴 소매 Caftan (高位 者) ① · 窄袖, 短上 衣, 圓領 ① · 革製短靴 ① · 革製長靴 ① ②	· 窄袖, 翻領長 袍 ① · 圓領, 窄袖, 長衫(內依) ②	· Caftan 窄袖, 左衽袍(20 cm 가 량 앞트임), 넓은 제끼기 ① · 소매 길어 올림 ① · 단추 1개 여밈, 帶, 長靴 · 窄袖, Caftan 式袍 ①, 帶, (長劍佩用) ① ② · 綾, 羅, 錦, 縐, 白疊 ③ ③, 錦袍 ③ ⑤ ⑥ · 大宛同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左 子	· 窄袖, 直領, 左衽,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窄袖, 直領, 左衽,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窄袖, 直領, 左衽,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窄袖, 直領, 左衽,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窄袖, 直領, 左衽,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 圓領, 窄袖, 帶, 緊身 型, 直線袴 ⑥ ④
典 據	① Ananyiono 高墳出土 Fin- noscythia 人物 像 ② 페르세폴리스 官廳壁투각 화(B.C. 512) ③ Solokha出土 古墳壺(B.C. 5 C) ④ Frquent Bar- row出土 ⑤ Kuloba出土 壺(B.C. 4C) ⑥ 河魚老實英 外 2人著(昭和 48), p. 185 ⑦ A.R. Burn, 「Herodotus the Histories」, Penquin Books, New York: (1972) p. 467	① 杉本正年, 「東洋服裝 史論攷」, 古代編」 (1979), p. 395 ② A.R. Burn, 「Herodotus: The Histories」, (1972), p. 467	① 杉本正年 (1979), p. 218 ② 小川誠一郎, 「世界史大系」, 卷3, 胡人, p. 218	①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악 궁 정 壁畫, (1號 室) (7C경) (西 壁) ②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악 궁 정 壁畫, (1號 室, 7C경 南壁) ③ 魏書, 卷101, 列傳, 第 89 ④ 晉書, 卷 97, 列傳 第 67, 四 夷 ⑤ 隋書, 卷 83, 列傳 第 48, 西 域 ⑥ 舊唐書, 唐 卷 198, 列傳, 第 148	① 杉本正年 (1979), p. 214	① 杉本正年 (1979), pp. 431~432 pp. 423~425 ② Pazyryk barrow, 5, The Carpet, 騎馬人物像 ③ S.I. Ruden- ko, 「Frozen Tombs of Siberia」, J.M. Dent & Sons Ltd. 1970	

任明美, 中國의 古代服飾研究(I), pp. 41~42. 引用

는다.

男性的의 신은 女性的의 신과 구별은 없으나 平野 지역에 사는 男性的의 신은 신발창이 부드러운 長靴를 신고 그 위에 가죽으로 된 카후시를 신고 따뜻한 季節에는 가로시(履)만 신거나 굽이 높은 長靴를 신는다.

타지크의 山嶽지대에는 多種多樣한 신이 있으며 傳統적인 풍습이 많이 남아 있다. 또한 타지크의 신의 名稱은 地方에 따라서 다르다.

다음은 타지크의 신의 종류와 양식이다.

2) 신의 種類와 形態 및 材料

① 女性的의 신

타지크 女性的의 傳統的인 신으로서는 가죽제의 이치기(靴)와 가로시(履) 등이다. 祝祭, 婚禮 때에는 이치기(靴)를 신고 그 위에 가죽제의 가로시(履)를 신었으며 아름답게 裝飾되어 있다(그림 2).

이치기(靴)에는 반드시 후부가 낮은 가죽제의 가로시(履)와 함께 신었으며, 보통 가정에서는 이치기

<표 1-2> 타지크의 服飾 구성

타지크의 服飾은 頭衣, 上衣, 下衣, 表衣, 帶, 足衣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名稱, 種類, 素材, 色이 다양하며, 概括的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용	명 칭	사용지역	형 태	재료와 색	용도·특징
頭	사바이·카지니이 cođaN KazNHN (프라토오그)	다루와자	· 머리 위에 쓰는 넓은 천으로 보통 폭의 3배를 이어 만듦. 그 위에 사루반다크(자수한 머리띠)를 두름.	견직, 백색	젊은 女性 祝祭日
		다루와자	· 보통폭 3폭을 새발뜨기로 잇고 양 끝을 세번 접어 박는다.	견직·적색	홀치기 염색
衣	차시무 반드 yaWMčaHA	레니나 바드 (19C말~20C초)	· 푸라토오크를 한 후 얼굴을 가리는 것		젊은 女性 사용, 祝祭日
		도시	· 검은 말의 꼬리털로 망을 짜서(약 50~60 cm×80 cm) 그 주위에 검은 무명으로 가장 자리 마무리. · 머리에 고정하는 방법은 끈으로 묶거나 loop를 만들어 단추를 끼움.	말의 털, 검은색	도시 女性의 外出服
	파란자 naraH 1 ж a	레니나 바드	· 푸라 토오크, 차시무 반드를 한 후 머리 위에 걸침. · 겹으로 바느질 함	회색	젊은 女性 祝祭日
		도시	· 여성의 모습을 머리부터 발 뒤축까지 완전히 가림.	우단, 밤색	外出服
	카르스 karc (프라토오그)	타지크의 산악지대 (19C~20C)	· 머리에서 어깨에 걸쳐서 감음.	무명, 백색	外出服
	뒤틀라 д урра	타지크의 산악지대	· 카르스 위에 맨다. 속에 종이 심어 있다.	견직	外出服
	리드 PN Ⅰ (프라토오크)	브하라 (19C~20C)	· 자수를 가득히 한 삼각형의 천 · 아프가니스탄에서 건너옴	견직, 보라	外出服
	루우모리 하리르 PyMOJIN xaPNP (프라토오그)	브하라 19C말	· 모자-프라토오그-케쇼나반드 위에 걸침. · 천을 사선으로 반분해서 만듦		外出服
케쇼나반드 newoHaдaη II	브하라 (19C~20C)	· 금자수 · 프라토오그 위에 감아맴 · 무늬는 수양 버들		外出服	

쿠르타이, 키시초카크 KyPTaH newyokak (원피스)	다루와자	· 네크라인이 깊은 V자 형 · 네크라인에서 밑단까지 두 줄의 실크로 된 끈(테시마아) 에 의해 여며짐	카정(현지에서) 짜 여진 견직물) 적 색	祝祭用 젊은 여성
쿠르타이, 쇼이나크 KyPTaH woHhak (원피스)	다루와자	· 네크라인이 U-cut로, 목트 임이 어깨선 따라 트임 · 가슴에 쇼이나크라는 가슴 받이가 붙어 있음. · 소매부리 접힘에도 가슴받 이와같이 크로스 자수 · 소매부리, 발꿈치사이에 초 비크라는 자수를 한 띠를 꿰 매 붙임.	백색	
쿠르타 kyPTa	레니나바드	· 세운 깃	아도라스(반견직 의 수자직), 적색	外出服
쿠이나 쿠차 kyHhakua (원피스)	레니나 바드	· 쿠르타 속에 입는 짧은 길 이의 원피스 · 프릿츠 장식이 된 세운 깃	무명, 백색	祝祭用 젊은 女性
쿠르타· 이치코 kyPTaH NTNKO (원피스)	타지크의 평야지 대	· 세운 깃 · 천은 훌치기 엄색한 날실 로 짜며, 소매 길이나 겉옷의 길이보다 길고 넓다. · 가슴에 보즈반드 장식 ※ 보즈반드 직방체의 케이 스로 되어 있고, 이 속에 이 슬람교의 기도문을 넣고 있 음.	아도라스, 적색	外出服
카무즈르 kaM3yH (원피스)	타지크의 산악지 대	· 네크라인이 깊은 V네크 · 소매부리가 넓다	두꺼운 견직물, 황색	外出服 중년 女性
루마차 PyMaya	타지크의 산악지 대	· 옷길이가 길고, 안감이 부 착 · 앞 몸판에는 무명으로 만 든 심이 들어 있음. · 밑단, 앞트임, 소매부리에 검은 우단으로 가장자리 마 무리를 하고 우단의 양쪽 끝 에 미싱 스티치	두꺼운 수직의 견 직, 회색	外出服 중년 女性
쿠르타이· 쿠이나 쿠차 kyPTaH kyHhakya (원피스)	브라하 (19C~20C)	· 가장 속에 입음. · 길이 파인 V네크라인이고 꽃 모양의 가장자리 장식. · 소매부리에 명주에 금자수 한 별도의 소매부리 달. (※ 19C말 것으로 소매부리 에 아랍 문자 자수한 것도 있 음.)	무명, 백색	外出服 젊은 女性
치르· 카몽 TИPy kaMoH	브하라 (19C~20C)	· 쿠르타이· 쿠이나 쿠차 위 에 입음. · 소매 길이는 쿠루타이, 쿠 이나 쿠차보다 짧음. · 길이 파인 V네크라인 (※ 19C말 것으로 소매부리 에 금사로 자수한 것도 있 음.)	견직물, 핑크	外出服 젊은 女性
제히· 쿠루타 또는 키시· 쿠루타 3exH kyPTa, newn KyPTa	부하라 (19C~20C)	· 치르카몽 위에 입고, 소매 길이도 보다 짧다. · 길이 파인 V네크라인, 네 크라인과 앞 중심의 장식으 로 검은 우단에 금자수한 끈 이 달려 있다.	두꺼운 견직, 백 색, 황색	外出服 젊은 女性

下	포이초마 nonyoMa (바지)	다루와자	· 원피스 안에 입는다	무명, 청색	祝祭用 젊은 女性
衣	포이초마, 로지미 이, 탕봉 nonyoMa ЛозНМИ ТаНдоН	타루와자	· 주술적 의미와 천을 절약 하기 위해 한 벌의 바지에 1~3 종류의 천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 바지 밑의 부분은 원피스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문양 이나 색채가 화려하고 값비 싼 천을 사용. · 정강이 위의 부분부터는 경 비를 절약하기 위해 값싼 천을 사용.	샤하로차 (수직의 무명) 다색	새색시의 바지는 행복하고 유복하 게 살도록 백색 무명
表	카무즈우르 kaMзyЛ	타지크의 평야지 대	· 재단은 구라파풍의 코트와 비슷하나 소매는 전통적인 하라이드처럼 옷감의 결을 열어로 숨	베카사(우 견직의 줄무늬 문양 있 음) 황색, 청색, 녹색	外出服
衣	카무즈 우르차 kaMзyЛya	타지크의 평야지 대 레니나 바드	· 소매 없는 것 · 옷길이는 웨이스트와 같거 나 그 보다 길다.	감색	祝祭用 젊은 女性
(하라이드)	무니사크와 카루 타치 MyHИcak kaпTaya	브하라 (19C~20C)	· 원피스 위에 걸치며, 웨이 스트가 좁게 만들어져 있고 양쪽 겨드랑이에 약간의 개 더를 잡음. · 천에 장미와 검은 우단의 일사귀 모양이 나타나게 짜 여짐	견직 회색	外出用 젊은 女性
(허리를 감는 띠)	루-모루 미운반 도, 쭈루스 로끼 PуMoЛ MИёHδaH yoPcy .lokИ		· 루-모루 90~100 cm의 장방 형의 네모천에 자수	수직천 무명 흰색 (노인용) 무지염색 (적, 청, 황)에 수놓음 (젊은 남자)	일반 男性은 허리 에 한 번, 약혼시 에는 두 세 번 맨 다.
프라토크	후다 ΦyTa	제라프산	· 남성용 허리띠 폭이 넓고 긴 띠	견직물, 모, 무 면, 바티엄	
足	카후시· 마후시 kaΦШy MaхcИH	평야	· 무릎 밑까지 오는 가죽제 長靴, 구두창이 부드럽고 여 기에다 가로시(鞋)를 신는 다. 이 속에 바지자락을 넣는 다.	가죽	평야지대의 도시 와 도시근교 女性 들 外出時
	마후시· 이로키 MaхcИH HPokИ	평야	·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이 산양 가죽을 잇대어 만든 長 靴	여러 가지 색 산양가죽	산양가죽으로 만 든 靴
衣	무키이 MyкИИ	산악	· 손목 정도 길이의 반 長靴 로 부사 뼈보다 약간 높다.솔 구두창과 몸통의 부분의 솔 기를 길로 드러내어 꿰맸 다.	생가죽	농사 작업용
	호마크 XOMaK		· 털 있는 부분을 바깥쪽으 로 하여 만든다	소, 당나귀 산양 등의 생가죽	농사일, 사냥
	넵 nex		· 한국 버선처럼 안창을 만 들지 않고 한장의 가죽을 발 바닥이 닿는 부분의 중앙에 솔기	야생 가죽인 산양 의 가죽	무릎까지 오는 長 靴

나프치프 Haxy 1P	· 굽은 등에 받을 고정시키는데 가죽을 겹으로 하여 만든다.	숫 산양의 안가죽	굽 높은 長靴 마술경기
--------------	-----------------------------------	-----------	--------------

< 표 2-1 > 文獻에 나타난 타지크의 신의 종류와 양식

신의 명칭	형 태	용도와 특징	재 료	기 타	지역
호마크		털 있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하여 밭갈이, 농사일, 사냥할 때 사용. 이 끝나면 더러움을 빼기 위해 발을 발라 상하지 않게 한다.	소, 당나귀, 산양 등의 생동물이므로 동물이 안 함)	반長靴	카라긴·다우와
카후시 슈빈		목재의 가로시(履)로 3개의 굽이 있다. 겨울철 여행시 부드러운 가죽으로 된 長靴를 신고 구두창의 보강과 발다닥 부분이 빨리 닳아 떨어지지 않게 나막신을 신었다.	木材	履	
보즈브르		야생의 숫산양 뿔과 철로 만든 아이젠	야생 숫산양 뿔, 철	아이젠	
초르크		다우와 지방의 초르크 무릎 부분을 長靴의 발바닥 부분으로 한다. 몸통은 짧고 말가죽으로 만든 長靴의 몸통은 길다. 튼튼해서 수확시 야외 작업에 사용.	革	長靴	
무키이		山嶽지방에서 농사 작업용으로 산양의 생가죽으로 만든 靴	산양 생가죽	반長靴	
포이트바		平野지대에서 추운 겨울에 이치기(長靴)를 신기 전에 형상으로 된 행전을 감는다.	平野 : 면 山嶽 : 양모	게트르 (행선)	
초르키이 차르바스타		신발의 밑창이 가죽으로 되었다.	革	長靴	
마후시		平野지대의 도시나 도시 근교에 사는 男性의 주된 신으로 신발창이 부드럽다.	革	長靴	평야부
가로시		가죽, 또는 고무 제품의 履	革, 고무	履	
초르크		세라후산 지박의 초르크 내구력이 있고 무릎까지 오는 長靴. 구두창 보강을 위해 별도로 한 장의 약간 넓은 밑창을 발바닥 부분에 대고 여분의 밑창을 발바닥 뒤꿈치, 측면 부분에서 뒷쪽으로 접어 만들 때 사용	長靴 본체 : 숫산양 반무두 밑창 : 소의 반무두	長靴	제라후산

무자		祝祭用으로 신의 굽이 높다	革	長靴	
호마크		제라후산 지방의 호마크는 履에 속하는 勞動用	革	履	
카후시		男性用 女性用	革	履	
미라후트 부시치 페프			革	長靴	후우후
샌들		신에서 남은 신의 上部를 구브려 使用	革		
케프		겨울철 勞動이나 여행시에 무릎까지 오는 부드러운 長靴, 복사뼈의 위치에서 짐승 털로 만든 구두끈, 케프 밴드로 단단하게 묶는다. 제작법은 버선처럼 안창을 만들지 않고 한 장의 가죽을 반으로 접거나 2장의 발 모양의 가죽을 서로 꿰맨다. (발바닥 중앙에 솔기가 생김)	야생, 가죽 산양의 革	長靴	
		< 케프를 신은 상태 > 페프 속에 바지 자락을 넣고 복사뼈 위치에서 끈으로 묶는다.			
카후		겨울 또는 남씨가 나쁜 雨期에 山嶽 지방에서 신는 나막신. 통나무를 파서 만든다. 굽이 앞에 2개, 뒤에 1개. 굽 끝에 금속 부착 나막신에 안창이나 부드러운 짚을 깔고 맨발로 신거나 長靴와 함께 신는다.	호도나무 어린 이용, 여성용은 야생의 나무 티두이에 바(타지크어)	나막신	
나링		일본 나막신(계파)과 같다.	木材	샌들	

바르노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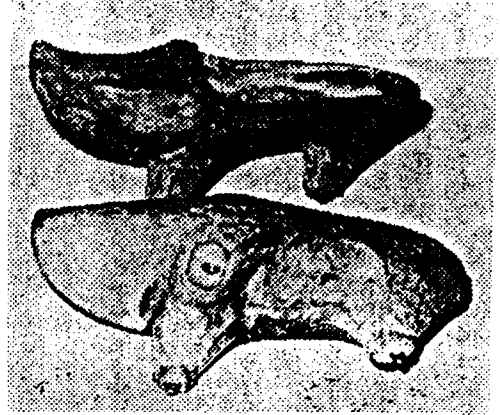
갑사면, 빙하를 걷을 때, 사냥할 때 사용.

야생의 숫산양이 뿔, 4개 붙여 만듬

아이생



[그림 2] 레니바 바드 박물관 소장의 靴



[그림 3] 레닌 그라드 박물관 소장의 나막신

(靴)를 신지 않고 가로시(履)만 신거나 카후시¹⁹⁾를 신었다.

富裕層은 명주실로 크로스 자수, 금은사로 꿰매어 반짝 반짝 빛나는 금속판이나 술을 단 카후시를 신었으며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산양 가죽을 이어 만든 가로시(履)도 신었다.

山嶽地方에서 신어지는 短靴로 카후시, 가로시 뿐 아니라 겨울 동안에는 굽이 새개 붙어 있는 나막신(後述)을 利用한다. (그림 3).

A. 카후시 마후시 Кафшы MaxCH

이치기(靴)로 구두창이 부드럽고 무릎 아래까지 오는 가죽재의 長靴로 이속에 바지자락을 넣고 그 위에 가로시(履)를 신는다.

B. 마후시·이로키 MaxCHH·HPOKI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산양의 작은 가죽을 잇대어 만든 靴.

C. 무키이 Мукии

농사 작업용의 신으로 복사뻐보다 약간 높은 신으로 생가죽으로 만들었으며 구두창과 운두 부분의 솔기를 겉으로 드러내어 꿰맸다.

C. 페스 Nex

무릎까지 오는 靴로 야생 혹은 가죽인 산양의 가죽

을 使用하였으며 製作法은 韓國式 버선처럼 안창을 만들지 않고 한 장의 가죽을 반으로 접거나 두 장의 발 모양의 가죽을 서로 꿰매어 발바닥에 닿는 부분의 중앙에 솔기가 생긴다.

E. 초르크 YoPyk

耐久力이 있는 것으로서 무릎까지 오는 靴이다. 창은 보강을 위해서 별도로 한 장의 약간 넓은 밀창을 발바닥 부분에 대고 여분의 밀창을 발부리, 뒤꿈치 그리고 측면 부분에서 뒷쪽으로 접어 만들었다.

靴의 본체는 수컷 산양의 반무두질한²⁰⁾ 가죽이며 밀창은 소의 반무두질한 가죽 使用.

F. 카후후·카후시·츄빈 Кафх КафшИ ЧувиИ

冬期나 雨期에 山嶽地方에서 나막신의 역할, 통나무를 파내어 만들며 굽이 앞에 2개, 뒤쪽에 1개로 굽 끝에 금속을 부착하는 일도 있다.

이 나막신에 안창이나 부드러운 짚을 깔고 맨발로 신거나 혹은 靴와 함께 신는다. 어린이 用도 있다.

19) 카후시...발부리, 발들을 덮고 측면은 얇다.

20) 무두질...소·말 등의 가죽 안쪽에 반죽한 대맥분을 발라 10일 돛. 그 뒤 소금을 발라 3일간 돛. 그 후 문질러 만듬.

② 男性의 신

男性들이 주로 신는 신은 신발창이 부드러운 靴를 신고, 그 위에다 가죽으로 만든 카후시를 함께 신는다. 따뜻한 季節에는 가로시만 신거나 그 밖에 굽이 높은 長靴를 신는다.

A. 호마크 XoMak

농사, 사냥할 때 신는 신으로 소, 당나귀 산양 등의 새가죽을 使用하며 털 있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하여 만들며, 作業이 끝나면 호마크의 더러움을 빼기 위해 소금을 발라 상하지 않게 한다.

B. 바르노브 naPHOM

急斜面, 氷河를 건널 때, 사냥할 때 利用하며 野生의 수컷 산양뿔을 사용하고 철제 갈고리 부착.

C. 나프치프 HaxyIP

수컷 山羊의 안가죽을 겹으로 하여 만든다. 마술 경기시 利用하며 굽이 높은 靴이다.

2. 우리나라 신

1) 우리나라 신의 종류와 양식

우리나라 신의 제도는 靴와 履가 並行되어 왔다. 다음은 그 靴와 履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① 靴

靴는 履와 더불어 우리나라 신의 대표적인 종류의 하나이다. 또한 胡服에서 유래된 신으로, 그 형태는 鳥²¹⁾에 連하여 신목에 붙어 있는 모양이다. 즉 胡에서 防寒防浸에 적당한 靴가 전래됨으로 해서 고구려에서는 대륙성 기후에 적당한 신이 되며, 武風的 上을 가진 고구려인들에게 널리 사용되었으리라고 본다.

우리나라 신의 제도는 靴와 履의 병행이 조선말까지 신의 기본 구조를 이루면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靴의 변천을 살펴 보면 鞞가 붙어 騎馬에 편리하여 戒服에 사용한다²²⁾. 고구려시대에 樂工人이 赤皮靴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舊唐書 권 19의 음악 조에 나타난다. 雙楹塚 後室北壁, 東壁 壁畫의 九人行列圖 중 3인이 착용한 모습이며 舞踊塚壁畫 舞踊圖 중 여인이 白靴를 신고, 음식을 나르는 여인과 시종 드는 남자가 白靴를 신고 있어 靴는 狩獵時를 제외하고는

주로 賤人階級에서 착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통일신라기의 靴는 삼국시대에서 볼 수 없는 靴帶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三國史記 권 33 服色條에는 靴帶의 재료로 隱文白玉, 犀, 鎗, 鐵, 銅 등이 있었고, 眞骨大 등은 隱文白玉을 금한다는 기록을 보면 靴帶의 貴金屬 장식이 유행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新羅人의 靴 着用 모습은 사마르칸드 아프리카시암 宮殿壁畫 新羅 使節圖에서²³⁾, 또한 唐의 壁畫 중의 新羅 사신도에서도 靴의 着用을 본다. 이 靴는 귀족, 평민에게 널리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宋의 神宗으로부터 공복에 靴가 賜與되고 辛禡 13年 5月(A.D. 1387) 明帝가 하사한 紗帽團領은 1품에서 9품까지의 관복이었는데 同王代에 冠服 改定時 黑皮靴로 제정되었다. 이 黑皮靴는 조선시대 肖像畫에서 발견되어지곤 한다²⁴⁾. 이로써 靴의 제도는 조선말까지 관복의 신으로 착용되었다.

② 履

履는 신복이 짧은 모든 신의 총칭이다. 漢·六朝 복식의 신의 종류는 履, 鳥, 鞞의 3종류로 나누고 있다. 이 중 鳥은 신의 밑을 이중으로 하여 가운데에 나무나 가죽을 대어 습기 오르는 것을 막았고, 冕服한 자는 赤色의 鳥을 冕衣한 사람은 烏色의 履를 신었다고 기록했다. 履나 鳥은 그 형태가 비슷하며 平壤彩篋塚 鳥과 樂浪墳墓의 출토 鳥은 底部에는 木底를 넣어 複底로 되어 있어 이를 증명하는데 밑받침이 된다.

胡服에 있어서의 이 鳥은 三國時代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사료된다. 즉 鳥의 변천은 樂浪墳墓 出土 鳥으로부터 恭愍王代의 賜與冠服 중 赤鳥이 있었고, 조선조 태종 3년 왕복의 신으로 絲鳥 한 쌍과 세종 7년(A.D. 1425)에 이르러 黑鳥, 세종 26년 紅絲鳥一雙이 착용되었다²⁵⁾. 다시 明으로부터 가져온 왕의 상복에 赤鳥이 있어 조선말까지 전하였음을 본다.

이는 신의 의미를 가지고 鞋, 屣, 屨, 躡, 躡의 종류를 포함한다²⁶⁾.

23) 金元龍, “사마르칸드 아프리카시암 宮殿壁畫 新羅使節圖” 考古美術 129·130 合號, p. 162-167.

24) 趙孝順, 朝鮮時代의 官服, 明知大論文集 十一輯, 1978, p. 743.

25) 世宗實錄 二十六年 三月, 卷一百一, 三十一.

26) 趙孝順, 古代 미혼남녀의 服裝 裝飾考, 大韓家政學會誌 12권, 1978, p. 41.

21) 原田淑人, 「漢·六朝의 服飾」, p. 149.

22) 釋名釋衣服 條

高句麗 壁畫 中 舞踊塚 奧壁壁畫의 주인이 黃革履를 신고 있으며, 주인의 대접을 받는 儔侶인듯한 사람은 흑색리를, 右壁壁畫의 남자 3인은 白履를 신고 있다²⁷⁾. 고구려는 귀족계급에서 黃革履를 신고 천인 계급은 화를 신었다.

백제에서는 왕복에 烏革履를 신었다²⁸⁾.

신라는 진덕왕(A.D. 648) 김춘추가 唐으로부터 衣帶를 받아들여 중국의 제도를 택하여 靴와 履가 병행하게 된다²⁹⁾.

고려시대의 신은 「高麗史」와 「高麗圖經」에 의하면 毅宗代에 明태조로부터 사여받은 祭冠服 중에 신에 革履를 신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구려시대의 靴가 고려조에 와서는 履로 바뀐 것 같다. 또한 國師는 烏革鈴履, 早隸는 烏革句履를, 서인들은 草履·句履를 신었다는 기록이 있다³⁰⁾.

다음은 문헌, 고분벽화, 초상화 실물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신의 양식이다.

2) 신의 種類와 形態 및 材料

① 皮革製

가죽을 사용한 신에는,

扶餘의 革鞞

馬韓의 革躡

高句麗의 黃革履, 烏皮靴, 赤皮靴

百濟의 烏皮履, 皮履

新羅의 紫皮靴, 烏鞞, 文紫皮靴³¹⁾, 烏皮靴

등으로 赤色, 黃色, 黑色, 紫色 등의 染色을 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죽을 다루는 기술이 능숙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北方 수렵지대에 그 根地를 가지고 발달한 나라인 高句麗는 皮革을 다루는 技術이 能해 日本書紀에 高句麗에서 皮革工을 데리 갔다는 說話가 있는 것으로 보아도 짐작할 수 있으며³²⁾, 또 각처에 散在한 高句麗 移民들에게 製革을 부과시킨 것으로도 高句麗에서는 가죽을 다루는 것이 一般化하여 발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舞踊塚主室奧壁壁畫」

28) 池內宏, 通講 下卷 參照.

29) 「舊唐書」, 列傳, 東夷條.

30) 「高麗圖經」 卷十九 參照.

31) 三國史記, 卷三十三 雜誌二色履

32) 李弘植, 「日本書紀 所載 高句麗關係 記事考」, 東方學志, 第一輯, 1954, p. 470-471.

< 표 3-1 > 문헌에 나타난 신의 양식

신	명 칭	문 헌 명	시대
靴	赤皮靴	舊唐書 志音 樂 高麗條	고구려
	烏皮靴		고구려
	紫皮靴	三國史記	신 라
	烏皮靴	色服條 三國史記 祭祀樂 新羅條	신 라
履	黑靴	세종 8년 (1426 A.D.) 王世者公服	조 선
	木靴	經國大典	조 선
	黑皮靴	儀章條	조 선
	挾金靴	禮曹祥	조 선
	白靴	定喪制	조 선
履	黃革履	北史高句	고구려
	黃革履	麗條	고구려
	烏革履	舊唐書	백 제
	草履	百濟傳	백 제
		後漢書	백 제
		韓傳	백 제
	烏革履	唐書	백 제
	烏革履	三國史記	백 제
	草履	古爾王條	백 제
	金銅履		백 제
	被絲履	三國史記	신 라
	罽羅履	色服條	신 라
	繡羅履		신 라
纈羅履		신 라	
麻履		신 라	
烏革鈴履	高麗圖經	고 려	
烏革句履		고 려	

이러한 가죽의 使用은 朝鮮時代에 이르러 더 보편화 되어 갔으며 靴나 履(鞋)의 두 종류를 다 만들어 신었다.

靴

靴는 가죽으로만 製作되어졌으며, 黑皮靴·木靴·挾金靴·水靴子·起子靴·犢皮靴·短靴·韃靴 등이 있다.

A. 黑皮靴·木靴

< 표 3-2 > 고분벽화, 초상화, 실물을 통해 본 신의 양식

명칭	벽화·초상화·실물	시대	착용인물
靴	쌍영총 부부상 사신총 인물도 쌍영총 기마인물도 무용총 주방도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주인공 주인과 세 부인 기마인 시종
	黑皮靴	李穡의 초상화	고려 1품~9품 관복
黑靴 木靴 黑皮靴 挾金靴	昌德宮 박물관 所藏	조선 조선 조선 조선	왕이하문무관리 왕이하문무관리 1품~9품 公服 堂上官常服
白靴	운양 민속 박물관 所藏	조선	관원 등이 국상 때 착용
履	쌍영총 행렬도 동구 삼실총 2실 찰감무인상 동구 사신총 동벽 역사상 무용총 영빈도 무용총 무용도 동구 제17호분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행렬인 찰감무인 力士人 승려 무용인 守門神將
	金銅履	전라남도 繡南面 신촌리 19분호 공주 宋山里 무녕 왕릉 경주 황남동 98호 분 천마총 대구 내당동의 55 호 고분 金鈴塚 金冠塚 飾履塚 染山夫婦塚 호암 미술관 소장 토리 단석산 공양 인물 상(암벽 벽화)	백제 백제 신라 " 가야 신라 신라 신라 가야 신라 신라 공양인

「林下筆記」³³⁾에 의하면 「靴子」는 皮物) 만들었으나 뒤에 氈(毛織物의 一種)으로 內粧하고, 外部는 靑綿 組縵으로 둘러서 靴子의 밖에 보이게 하고, 高級品은 錦縵으로 꾸미었다. 近來에 새로 생긴 太祖의 御製한 모양대로 만드니 水靴子와 같다」고 하였으니 가족으로만 하던 靴가 變化되어 內部와 가에 氈과 靑綿縵이나 錦縵 등으로 裝飾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후에 또한 形을 유지하기 위해 발목까지 나무로 만들게 되어 木靴라는 명칭이 나왔고 黑皮靴 대신 公服에 사용되어졌다.

B. 挾金靴

堂上官以上の 常服에 사용되던 靴인데, 어떤 形態인지 알 수 없으나 金으로 장식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한다.

C. 換皮靴

換皮靴는 換皮로 만든 신일 것인즉 世宗朝에서만 記錄에 나타나 있어 流品朝士 및 有蔭子弟만 사용하도록 하였음이 世宗二十八年 禁制에 보인다. 그러나 二年後인 三十一年에 내린 禁制에는 流品朝士 및 有蔭子弟 外에 衣冠弟 및 成衆官에게까지 許容되어졌다.

D. 短靴

女子用 靴로 騎馬時와 비 올 때 사용하던 것으로 男子用 靴보다 신목이 짧았던 것 같다.

E. 童靴

어린이用 靴로서 形態는 알 수 없고, 한때는 女子들도 많이 사용하여 禁制令까지 내리었다.

鞋(履)

가족으로 만든 黑皮鞋·分套鞋·套鞋·皮草鞋·太士鞋·唐鞋·雲鞋(溫鞋)·발막신·징신 등이 있다.

A. 黑皮鞋

百官公服의 祭服과 朝服에 사용되던 신이나 實物이 없어 形態를 알 수 없다.

B. 分套鞋·套鞋

이것은 추울 때나 비올 때 신던 덧신의 일종이 아니었는가 생각되며, 分套鞋와 套鞋의 구별은 신을 덧끼우는데 있어 일부나 전부나 하는데 있었다고 본다.

「太宗實錄」에서 보면 同王 6年 12월에 分套鞋는 極

寒日에 있어 殿廷 朝會와 行幸 迎送時에만 착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病이 있고 年老하여서 이를 신기를 자원하는 者는 다른 경우에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였으며³⁴⁾, 李裕元의 「林下筆記」에 政府 掌藥官 朴時亮이 禁制를 무릅쓰고, 公會時에 진흥에서 靴者 위에 分套鞋를 신었다고 있어³⁵⁾, 分套鞋가 덧신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C. 皮草鞋

皮와 草로 만든 신임에는 틀림없고 材料의 성질로 보아 밑바닥, 즉 신창은 가죽이며 운두는 草·麻로 된 것이라고 본다³⁶⁾.

또한 材料에 있어서 같은 가죽이로되 貴者와 賤者 사이의 구별이 있어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보이는 바 貴者는 鹿皮를 사용하고 賤者는 牛皮를 사용하였던 것이다³⁷⁾.

D. 太史鞋

男子들 마른 신의 일종으로 울을 형깊이나 가죽으로 하고 코와 뒤축에 흰 線紋을 새겨어 놓았다. 어린이들의 太史鞋는 일명 '초립동'이라고도 하며, 연두 빛 바탕에 당홍 唐書福文과 태사문을 아니면 당홍 바탕에 연두문을 놓기도 하였다³⁸⁾.

이 太史鞋는 士大夫나 兩班階級의 나이든 사람이 便服에 신었으며 國末에는 王도 平常服에 이를 착용하였다.

E. 발막신

마른 신의 한가지인데, 흔히 上流階級의 老人들이 신었으며, 뒤축과 코에 쉼엔 솔기가 없고, 코 끝이 뾰족하지 않고 넘적하였으며, 가죽 조각을 대고 輕粉을 칠했다. 이 신을 '발막'이라고도 하였다.

F. 油鞋

들기름에 걸쳐서 만든 진땅에 신는 가죽신으로 '진신'이라고도 하였으며 신창에 '징'을 촘촘히 박고 있어 '징신'이라고도 하였다.

油鞋는 두껍고 탄탄한 牛皮, 馬皮, 개가죽 따위를

써 바닥을 두텁게 하고 볼도 두껍게 만들어 신었다³⁹⁾.

② 草·麻製

草·麻製로 된 '신'은 주로 履이며 草履와 麻鞋(履)로 구분된다. 이것들은 皮革製·布帛製 등의 靴·鞋가 발달하면서 賤視되어 차차 史隸下賤人의 신이 되었고 庶民層 男女가 일반적으로 共用하였으며, 그 精製品은 士大夫間에서 그런대로 便服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A. 草履

'짚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에는 '짚신', '왕골 짚신', '부들 짚신', '고은 짚신', '엄 짚신' 등의 이름이 있었으며, 이 왕골(莞草), 부들(香蒲) 등을 가늘게 꼬아서 촘촘히 삼은 짚신은 능히 사치품이 될만하여 '고은 짚신'이라 하였고, '엄 짚신'은 상제가 초상 때부터 졸곡 때까지 신는 짚신으로 菅履, 菅履라고도 하였다.

B. 麻鞋

'미투리'라고 하는 것으로 '屨'·'삼신'이라고도 하였으며 이에는 '삼신', '절치', '탐골치', '무리 바닥', '紙총 미투리' 등의 이름이 있었다.

'삼신'은 생삼으로 거칠게 삼은 미투리이며, '절치'는 분시 짚에서 만들어 신었다는 데서 나온 이름으로 이것도 거칠게 삼은 것이었고, '탐골치'는 옛적 東大門 밖 塔골에서 삼은 데서 나온 이름으로 썩 튼튼하게 잘 삼은 미투리였으며, '무리 바닥'은 쌀 무리를 바닥에 먹인 것이고, '紙총 미투리'는 '총'을 종이로 꼬아서 만든 미투리였다.

미투리는 짚신보다 고급품으로 재로는 麻였으나 사치해져 감에 따라 楮, 청울치(葛根纖維), 白紙, 綿絲까지도 사용하였으며 1經(經)도 6經 내지 8經인 것이 나오게 되었으며 8經 粹塗의 무리 바닥은 精製品이라 할 만하였다.

③ 布帛製

가죽신에 布帛 겹을 댄기 때문에 布帛製로 취급되는데 皮革製中の 太史鞋, 女子用的 唐鞋, 雲鞋, 紗羅綾緞鞋 등이 있다.

A. 唐鞋

신코에 唐草紋을 수놓은 것이며 무늬 있는 비단을

33) 李裕元, 「林下筆記」卷二十七, 春明逸事參照.

34) 「太宗實錄」卷十二, 六年十二月條參照.

35) 李裕元著, 전계서, 卷十法令參照.

36)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 p. 383.

37) 李符撰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一參照.

38) 芮庸海, 「靴匠黃永壽」인간문화재(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문공부, 1963), p. 375.

39) 맹인재, 「韓國의 民俗工藝」(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p. 230.

신 둘레에 바른 관계로 唐鞋라 한다. 良家집 규수들은 唐鞋나 雲鞋(溫鞋)를 준비하여 婚期를 맞이할 정도로 貴한 신이었으며, 주로 上流階級の 나이든 婦女子들이 신었고, 紅바탕에 靑文을 놓은 것을 청목갱이라 하여 조금 나이든 계층에서 신었고⁴⁰⁾, 靑 바탕에 紅文을 놓은 것을 홍목갱이라 하여 젊은 층에서 주로 신었다⁴¹⁾.

B. 雲鞋

溫鞋라고도 하며 형태는 唐鞋와 같다. 바닥은 가죽을 댄 단창이며 그 곁에 웅겅은 것을 굽게 기워 아름답게 꾸미고 신바닥에 정을 박았다. 신고에는 앞머구리를 대고 죽엽을 새겨 붙이며 뒤꿈치에는 뒷머구리를 대고 굽뺨이를 틀어 끼워 붙인다.

제비 부리같이 생겼다 하여 제비 부리신이라고도 한다. 일반 여염집 婦女子들이 신었다⁴²⁾.

王妃의 常服이나 上流階級の 婦女子들이 宮에 출입할 때와 三揀擇視 處女들도 이 雲鞋를 신었다⁴³⁾.

④ 鑰製

놋쇠로 만든 신으로 鑰鞋 또는 놋신이라고 하며, 일반화된 것은 아니고 특수층에서 雨巾의 비신 대용이었다고 본다.

⑤ 木製

A. 나막신

木製의 신, 즉 나막신을 屐者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옛날에는 '격지'라 하였고 近來에는 '나무신'의 謙인 '나막신'으로 通稱되었다.

우선 '나막신'의 起源과 우리나라에서의 내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李圭景이 「五洲衍文長箋教稿」 木屐辯證說에서 "木屐은 시골의 淸貧한 선비(鄉曲 措大)가 신는 것이며, 木屐을 着하는 것은 雨晴·燥濕에 通行하는데 오래 견디고 헤지지 않는 것을 취해서이며, 木屐은 즉 屐의 最古의 것"이라고 하였다.

宣祖代 壬辰前에 통용되던 木屐은 일본의 '게다'와 같은 平履였는데, 四方에 신을을 하고 굽을 달아 履의 형식으로 발달하면서부터 平履는 사라지고 나무를

배 모양으로 파고 밑에 굽이 두 개 달린 나막신으로 변했다.

나막신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착용이 허용되었는데 남녀의 형태상 차이가 있다. 무겁고 비활 동적이어서 騎馬視나 遠行視에는 신지 않았다. 또 中國의 漢代에도 屐과 木履가 있어 일반 庶民은 木履를 신었고, 木履의 일종인 屐은 상류사회에서 사용된 것으로 일반 庶民은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 형태는 上部는 나무를 도려내고, 後部에 달린 끈으로 발에 묶었다⁴⁴⁾(그림 4 漢대의 屐).

이 屐과 비슷한 中央아시아의 木履(5~8세기경)가 실물로 남아 있으며⁴⁵⁾, 타지크의 카라테긴 地方에서 신던 카후시추빈이라는 木製의 나막신은 3개의 굽이 있다.

⑥ 그 외

A. 외코신

上流階級에서만 사용했던 신으로 신고에 아무 장식도 없는 단조로운 모양이다.

신의 둘레를 흰색, 옥색, 검정색의 비단과 검정물 들인 鹿皮 가죽으로 하고 신둘레 윗부분에 개가죽으로 칠패를 넣은 최고급 신으로, 특히 鹿皮靴는 王의 常服에 착용하기도 하였다⁴⁶⁾.

B. 儉鞋

승려들의 마른신을 儉鞋라 하며, 또는 黑鞋라고도 한다. 용을 主材로 딱딱하지 않고 폭신폭신하며, 바닥은 단창으로 布鞋와 같다⁴⁷⁾.

C. 靱鞋

가죽, 풀로 제작되며 앞쪽이 길고 뒤축이 없는 것으로 宮中에서만 신었는데 요즘의 실내화와 같은 형의 신으로 추측된다⁴⁸⁾.

D. 노파리

일종의 防寒用鞋. 발의 동상을 막기 위해 고급품은 용단으로 만들었고, 일반용은 布 안에 솜을 넣어 두툼하게 만들었다⁴⁹⁾.

40) 金用淑, "李朝後期內人生活研究" 아세아 여성연구 제 3 호(숙대 아세아여성연구소 출판, 1964), p. 18.

41) 芮庸海, 전제서, p. 375.

42) 柳喜卿, 전제서, p. 504.

43) 金用淑, "宮中女性生活研究" 아세아여성연구 제 4 호(숙대 아세아여성연구소 출판, 1965), p. 34.

44)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政, 中世編」(東京:文化出版局, 1984), p.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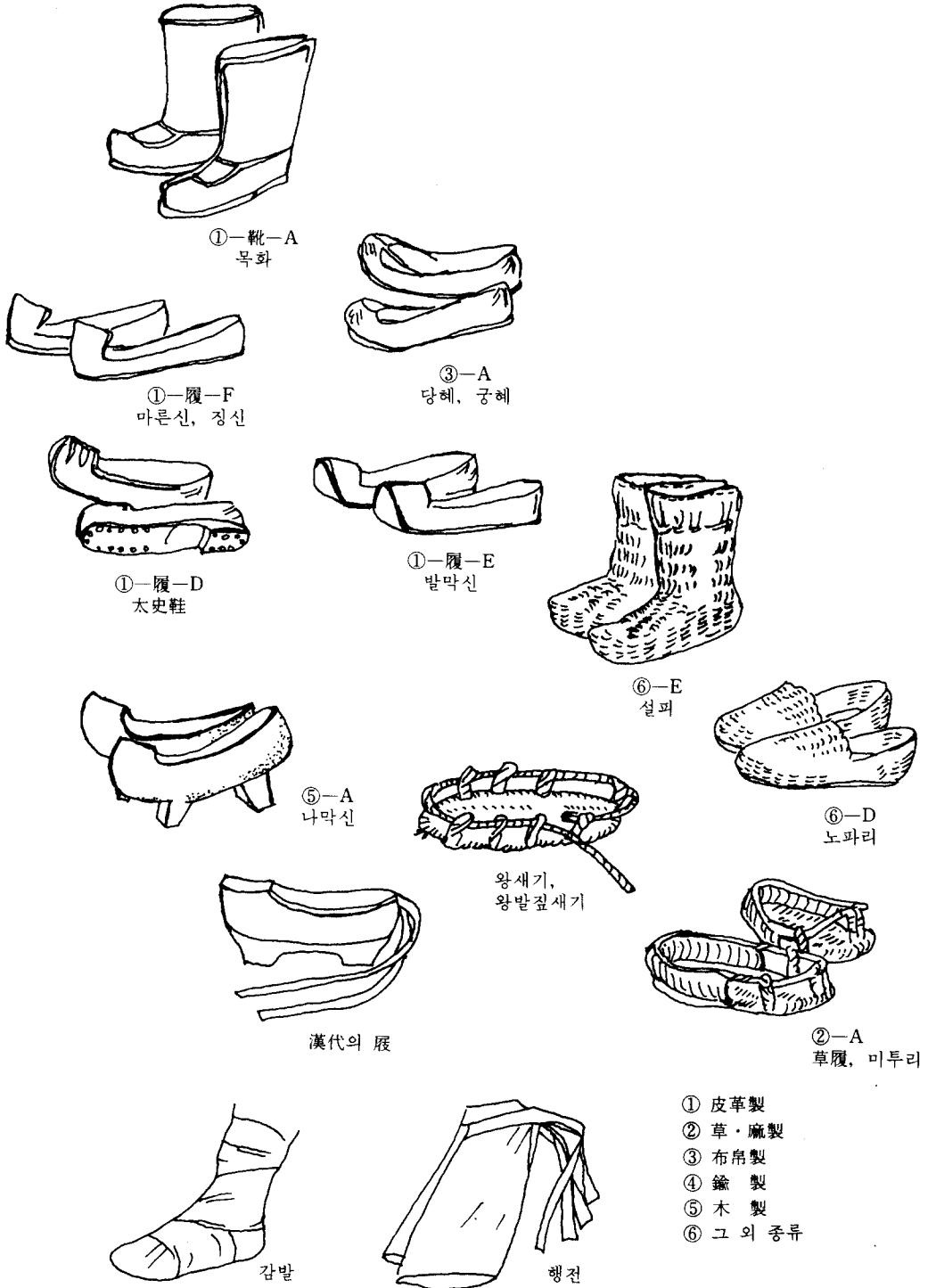
45) 우리나라 國立中央博物館所藏.

46) 김인자, 「종합 Design」(서울:종합 Design 출판부, 1982), p. 32.

47) 黃沍根, 「한국장신구미술연구」, (一志社, 1980), p. 439.

48) 맹인재, 전제서, p. 229.

49) 黃沍根, 전제서, p. 440.



[그림 4] 우리나라 신의 形態 및 材料

E. 설피

사냥과 채집을 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눈이 오면 눈 위에서 신던 신발로 짚이나 나무로 만들었다⁵⁰⁾.

3. 타지크의 신과 우리나라 신의 비교

1) 形態

① 우리나라

三國以前의 모양은 상세히 알 수 없으나 크게 나누어 신목이 없고 신바닥과 신 운두만으로 된 履와 신 운두 위에 신목이 짧게 또는 길게 있는 靴의 두 가지 모양이 朝鮮朝 말엽까지 계속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모양과 재료에 따라 신의 이름이 지어졌다⁵¹⁾.

履의 형태는 三國時代의 기본형이 변화없이 지속되어 오다가 朝鮮朝 말기에 들어 男女 신의 형태가 독특하게 변화하여 정착하게 된다.

즉 男子用은 코가 넓적하고 코에서 윗타리에 이르는 부분이 각이 지는 형태로 고정된다. 女子用은 앞코가 뾰족하고 신 윗타리가 낮고 앞 코에서 뒤축에 이르는 부분이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이루고 있다.

靴의 형태도 朝鮮後期의 것일수록 신바닥이 위로 많이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²⁾.

이러한 신의 곡선적인 형태는 저고리의 배래나 도련 등의 곡선과 함께 발달되었다고 본다.

② 타지크

女性的 신의 모양은 거의 男性的 신과 같지만 女性的 신에는 장식되어 있는 것이 많다. 履의 일종인 카후시는 발부리가 뾰족하고 전면은 덮여 있는 형태로서 색실로 섬세하게 꿰매었거나 자수 또는 술과 작은 금속관을 부착하여 아름답게 만들어 신었으며 上流社會에서는 수를 놓은 카후시를 신고 그 위에 카후시를 신기도 하였다⁵³⁾(그림 2 참조).

타지크의 山嶽 지역에서는 좁고 험한 산길이 많고, 구름 위까지 달하는 고개는 연간 8~10개월간 눈에 묻혀 그 동안은 外界와 단절된 채 내는 깊은 山嶽지

역도 많았다⁵⁴⁾.

山嶽지역의 주민은 걸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200리의 산길은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따라 부드러운 長靴와 눈 위에서도 걸을 수 있는 차파르(눈 속에 빠지지 않게 신 밑에 대는 물건)라는 것을 많이 利用하였고 굽이 앞에 2개, 뒤쪽에 1개 붙어 있는 통나무로 된 나막 신도 있었다.

이와 같이 타지크인들은 신의 利用에 있어서 美的 보다는 實用性 위주로 신을 신은 듯하다.

2) 材料

① 우리 나라

우리나라 신의 재료는 草麻, 皮帛, 金銅鎗, 紙, 木 등이 사용되었으며 上流社會에서는 皮革, 布帛이 주로 사용되었고, 특히 朝鮮時代에는 생활의 사치를 금하기 위해 일반 사람의 가죽신 신는 것이 금지되었던 때도 있었으나 여전히 신어져서 賤者는 牛皮를 貴者는 麀皮를 신었다하니 신분에 따라 신에 사용되는 가죽의 종류도 각각이었던 모양이다⁵⁵⁾.

일반 서민층의 平服에는 草麻製 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계급적인 衣服에 따라 신도 가려 신었고 용도에 따라 가려 신은 것으로 보아진다.

② 타지크

타지크의 신의 재료는 皮革, 木 草 등으로 皮革을 주로 사용하였다.

특히 上流층의 女性들은 皮革製의 카후시를 신고 一般가정의 여성들은 튼튼한 皮革製의 카후시를 신었다.

농사 작업용의 신으로 생각죽으로 만든 반장화 무키이를 신었고, 겨울철의 노동이나 여행시에는 야생 혹은 가죽인 산양의 가죽으로 만든 무릎까지 오는 페프(長靴)를 신었다.

들일을 할 때 주로 신는 초크크는 무릎까지 오는 長靴로 신의 본체는 숫 산양의 반무두질한 가죽을 사용하고 밑창은 소의 반무두질 가죽을 사용하였고 겨울, 또는 날씨가 나쁜 雨期에는 카후후, 카후시, 추빈이라는 木製의 나막신을 신었다. 男性用으로 농사나 사냥할 때에는 半長靴 호마크를 사용하며 이것은 소,

50) 高卿淑, “韓國의 靴鞋類에 관한 고찰”(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 35.

51) 朴京子, 「韓國服飾論政」(서울:新丘文化社, 1983), p. 136.

52) 金芝嬭, “우리나라 신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88), p. 76.

53) 加藤定子, 전계서, p. 166.

54) 加藤九祚, 加藤定子, 전계서, p. 78.

55) 朴京子, 전계서, p. 139.

당나귀, 산양 등의 생가죽으로 만들었고 금사면, 빙하를 건널 때, 사냥할 때는 바르노브라는 아이젠으로 야생 숫산양뿔을 사용하였다.

마술 경기를 위해서 굽이 높은 長靴 나프치프는 숫산양의 안가죽을 겹으로 하여 만들기도 한다.

이와 같이 타지크는 주로 皮革을 利用한 신이 대부분이었다.

V. 結 論

研究 內容으로 타지크의 生活文化 및 衣服文化, 足衣의 종류와 형태 및 재료 등을 우리 足衣와 비교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타지크는 소련령의 中央아시아에 위치하며, 고대 이란語族의 직접적인 후손으로 종교는 이슬람교이며, 옛 풍속은 山嶽지방에 많이 남아 있다.

2. 中央아시아의 타지크 文化 특히 服飾문화는 動物 가죽을 처음 衣服으로 使用한 페르시아 즉 스키타이(Skythai)系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3. 페르시아 服飾史上 처음으로 등장한 바지, 발목까지 오는 皮革과 felt로 된 長靴는 中央아시아 服飾文化의 源流로서 우리나라 服飾文化와도 연관된다고 보아진다.

4. 타지크의 신의 양식은 靴, 履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山嶽지역과 平野지역과 큰 차이가 있었으며 山嶽지역 신에서 옛 양식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5. 우리나라 신의 양식과 비교할 때 靴·履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이 있고 특히 形態, 材料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았다.

6. 지형, 기후적인 조건, 생활 양식등으로 인하여 타지크는 靴를 더 많이 착용하고 우리는 履를 더 많이 착용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아진다.

7. 女性과 男性의 신 모양은 거의 같지만 女性의 신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裝飾이 되어 있다.

8. 타지크의 신의 재료는 가죽이 거의 대부분이며 靴는 勞動用으로 利用한다.

9. 타지크 男性의 추울 때의 신은 신발창이 부드러운 長靴(마후시)를 신고 그 위에 가죽으로 만든 履(가로시)를 신었다. 이것은 추울 때나 비올 때 신었던 덧신의 일종인 分套鞋, 套鞋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한다.

10. 사마르카드 아르라시얌 官殿壁畫, 新羅使節圖의 靴 着用 모습은 그 時代의 교류 관계를 보여 준다.

11. 胡服에 있어서 靴는 三國時代에는 물론 그 이전부터 朝鮮時代까지의 모양이 타지크의 靴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12. 타지크의 나막신의 모양은 우리 나라 男子의 나막신의 모양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13. 우리 나라, 타지크 모두 신의 材料로 사용한 가죽이 신을 착용하는 사람의 계급에 따라 질을 달리 했음을 알 수 있다.

14. 우리 나라가 타지크보다 신의 材料가 다양하며 계급에 따라 形態, 材料 용도를 달리했다.

15. 우리 나라 신의 形態가 곡선적인 形態라면 타지크는 직선적인 形態가 많다.

우리 나라 신은 저고리의 배래 도련등의 곡선과 함께 조화를 이룬다고 보며 신 또한 時代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16. 타지크와 우리 나라는 신의 계통과 양식이 같다고 보아진다.

앞으로 타지크의 服飾研究를 통하여 많은 공통점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계속 研究하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1. 高麗圖經
2. 舊唐書
3. 三國史記
4. 釋名
5. 世宗實錄
6. 太宗實錄
7. 高卿淑, "韓國의 靴鞋類에 관한 고찰"(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1)
8. 具仁淑, "古代西洋의 신발에 관한 研究"(忠南大學校 自然科學研究所, 1980)
9. 金文子, "古代韓國服飾의 源流에 관한 研究"(博士學位論文, 이화여자대학교, 1984)
10. 金用淑, "宮中女性生活研究" 아세아 여성 연구 제 4호(숙대 아세아 여성 연구 출판, 1965)
11. 金元龍, 「韓國文化의 起源」(서울: 探究堂, 1976)
12. 김인자, 「종합 Design」(서울: 종합 Design 출판부, 1982)
13. 金芝嬉, "우리 나라 신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88)

14. 맹인재, 「韓國의 民俗工藝」(서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9)
15. 朴京子, 「韓國服飾論政」(서울: 新丘文化社, 1983)
16. 芮庸海, 「靴匠黃迎壽」 인간문화재(서울: 교과서주식회사 문공부, 1963)
17. 「世界文化史II」(서울: 學園社, 1964)
18. 柳喜卿, 「한국 복식사 연구」(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
19. 李荇撰, 「新增東國餘地勝覽」
20. 李如星, 「朝鮮服飾考」(서울: 白楊堂, 1947)
21. 李裕元, 「林下筆記」
22. 이은창, 「한국 복식의 역사」(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8)
23. 李正玉, 「西洋服飾史」(서울: 學問社, 1980)
24. 任明美, 「中國의 古代服飾研究(I)」(서울: 耕春社, 1988)
25. 李弘植, 「日本書考 所載 高句麗關係記事考」(東方學志, 第一輯, 1954)
26. 趙孝順, 古代미혼 남녀의 服裝裝飾考, 大韓家政學會誌 12권, 1978
27. 朝鮮時代の 官服, 明知大論文集 十一輯, 1978
28. 黃沅根, 「한국 정신구 미술 연구」(一志社, 1980)
29. 加藤九祚, 加藤定子, 「民族生活文化誌」(衣生活研究會, 1987)
30. 加藤定子, 「タジクの民族服二」, 「服裝文化」 NO. 156, 1977
31. 江上波夫, 「騎馬民族國家」(東京: 中央公論社, 1967)
32.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政, 中世編」(東京: 文化出版局, 1984)
33. 原田淑人, 「漢・六朝の服飾」
34. 池內宏, 通講
35. Lawrence Langner, 「服裝의 心理」 朴東俊, 서울維新文化社, 1981
36.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5)
37. 에드윈·오·라이샤워외著, 全海宗外譯, 「東洋文化史」, 上卷, (서울: 乙酉文化史, 1964)